

# 《史記》三家注에 보이는 文字관련 訓詁의 고찰\*

서 원 남\*\*

---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사기〉三家注의 문자에 대한 훈고 내용
    - 1. 文字用例에 대한 변별
    - 2. 字音에 대한 주석
  - III. 三家注의 文字訓詁 용례
    - 1. 假借字
    - 2. 通假字
    - 3. 古今字
  - IV. 결론
- 

## I. 들어가는 말

훈고학(訓詁學)은 중국 전통언어문자학 가운데 詞語의 해석과 語意를 연구하는 한 분야로 중국의 고대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등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東晉의 郭璞은 《爾雅·釋詁》에서 “此所以釋古今之異言, 通方俗之殊語.”라고 훈고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였다. 일반적으로 훈고란 시대와 지역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난해한 말을 당시의 알기 쉬운 말로 풀이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전통훈고학은 주로 고대문헌의 언어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낱말의 풀이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훈고학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이해는 중국 전통소학의 발전과 배경으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小學’이란 낱말은 《大戴禮記》卷三〈保傳〉에서 “古者, 太子八歲入小學, 十五入太學也”라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후 西漢의 劉向부자가 편찬한 《輯略》과 《七略》에서부터 소학을 字書와 六書의 학문

\* 이 논문은 2013년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3-G)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班固의 《漢書·藝文志》〈孝經類〉에 《爾雅》三卷二十篇과 《小雅》一篇을 수록하고 그 아래에 별도로 ‘小學’이라는 학문 분야를 세워서 小學十四家四十五篇을 수록하였다. 《隋書·經籍志》에서는 音韻學 저작과 文字學 저작인 《說文解字》 등을 함께 〈小學類〉에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舊唐書·藝文志》에서는 처음으로 訓詁學 저서의 鼻祖라고 하는 《爾雅》를 ‘小學類’에 귀속시켰고, 宋代 《崇文總目敘釋·小學類》에서는 ‘小學類’를 ‘訓詁之學’, ‘偏傍之學’, ‘音韻之學’, ‘字書之學’으로 구분하였으며, 동시대의 목록서인 《郡齋讀書志》와 《玉海》에서는 ‘體制’, ‘訓詁’, ‘音韻’으로 명칭을 달리 구분하였다. 清代에 이르러 《四庫全書總目》에서 小學을 ‘訓詁’, ‘字書’, ‘韻書’로 구분 짓게 되면서 訓詁는 중국 전통소학의 전문적인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 訓詁學의 태동은 春秋戰國시기부터 시작되었는데 《易十翼》, 《毛詩故訓傳》 및 《春秋》의 微言大義를 설명하고 있는 《公羊傳》, 《谷梁傳》 등의 훈고전문 서적과 선진제자의 著書들이 근거자료이다. 先秦시기의 訓詁의 내용은 낱말의 풀이, 문구나 편장의 대의 해석과 전장제도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며, 방법도 자형에 근거하여 자의나 낱말을 해석하는 形訓, 동음 또는 근음자로 자의나 낱말을 풀이하는 聲訓, 그리고 가장 폭 넓게 사용한 義訓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者’, ‘…也’, ‘…也者’, ‘…者也’, ‘…爲’, ‘…曰’, ‘…謂之’, ‘…之爲言’, ‘…猶…也’ 등의 술어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위에 열거한 훈고자료들이 대략적인 선진시기의 훈고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중국 훈고학의 발전에 영향을 준 자료들도 많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史記》는 전문 훈고학 서적은 아니지만 《사기》가 지닌 훈고가치는 전통훈고학의 체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훈고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左傳》과 《國語》에서 《詩經》을 인용함에 있어 글자나 낱말의 풀이에 치중하기 보다는 “賦詩言志”, 즉 외교적인 수사의 목적으로 그 숨어 있는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에 반해 《史記》와 三家注는 선진 문헌을 인용함에 있어 문장의 의미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당시에 통행되던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古字나 古語를 해석하여 중국의 전통 훈고학의 표준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도 지역의 방언이나 속어에 대해서도 정확한 풀이를 하고 있으며, 선진시기 훈고서적들이 사물의 풀이에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史記》에서는 충분한 설

명을 하고 있어 先秦시기의 訓詁 보다 그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史記》三家注의 文字에 대한 훈고 용례의 내용을 통하여 그에 대한 실태와 양상들을 분류 분석하여 三家注에 나타난 문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史記》三家注의 文字에 대한 訓詁 내용

### 1. 文字 용례에 대한 변별

역대로 古書의 문자용례를 살펴보면 동음가차 현상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자의 발전과 변화과정에서 자형과 자음의 변화로 인하여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특히나 漢唐시기에는 고급 언어의 자형과 자음에 복잡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三家注〉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주석을 달았다.

- ① 〈蘇秦列傳〉: “堅甲鐵幕, 革抉口+攴, 無不畢具.”-【索隱】“口+攴與馘同, 音伐, 謂楯也.”
- ② 〈天官書〉: “兎過太白, 間可械劍, 小戰, 客勝.”-【索隱】“劍, 古作劔也.”
- ③ 〈老子韓非列傳〉: “大忠無所拂悟, 辭言無所擊排, 迺後申其辯知焉.”-【正義】“拂悟當爲拂忤, 古字假借耳, 拂, 違也. 忤, 逆也.”
- ④ 〈太史公自序〉: “意在斯呼. 意在斯呼. 小子何敢讓焉.”【索隱】“讓, 漢書作攘. 晉灼云此古讓字, 言已當述先人之業, 何敢自嫌值五百歲而讓也.”

위의 열거한 용례① 가운데 (口+攴)자는‘馘’의 이체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集韻》에서는 “馘, 說文: 盾也.”라고 하였고, 《段注》에서는 ‘馘’에 대해 “作馘者, 或體也. 作伐者, 假借字. 蘇秦傳作口+攴”라고 한 것을 통하여 볼 때 〈索隱〉의 주석은 異體字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례② 주석의 ‘劔’과 ‘劍’은, 《說文》에서 “劔, 人所帶兵也. 從刀, 僉聲. 劍, 籀文劔, 從刀.”라고 한 것으로 보아 ‘劔’은 ‘劍’자가 隸變을 거친 후에 생겨난 간화체이다. 따라서 용자의 선후 관계로 보아 ‘劔’이 古字, ‘劍’이 今字인 古今字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례③의

주석에서는 ‘拂悟’와 ‘拂忤’가 통가 관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拂’과 ‘拂’의 고음은 각각 ‘滂母物部’, ‘並母物部’로 음이 유사한 통가관계이며, ‘悟’와 ‘忤’의 고음은 각각 ‘並母魚部’와 ‘疑母魚部’임으로 雙聲疊韻의 통가자임을 알 수 있다. 용례④의 ‘攘’과 ‘讓’은 고음이 모두 ‘日母陽部’이고, ‘讓’은 말로 사양을 표시하고, ‘攘’은 손으로 사양을 표시하는 것으로 두 글자가 의미상 연관성이 있다. 《段注》에서는 “推手使前也. 古推讓字如此作”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두 글자는 동원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索隱〉의 주석에서는 두 글자가 假借관계 및 古今字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 2. 字音에 대한 주석

〈三家注〉의 자음 표기 방법은 직음법, 반절법, 음조표기, 同音字나 今音字를 사용한 독음법, 다른 문헌이나 학자들의 독음을 인용하는 법 등 고대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된 字音 표기 용어도 ‘讀如某’, ‘如某某音’, ‘音若某’, ‘讀如某某之某’, ‘讀從某音’, ‘某某聲近’, ‘某某音近’, ‘呼爲某’, ‘某音某’, ‘某某二音’, ‘某某某三音’, ‘某, 某某反’, ‘某音某某反’, ‘某某切’, ‘上某某反, 下某某反’ 등 매우 다양하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 〈屈原賈生列傳〉: “自疏濯淖污泥之中, 蟬蛻于濁穢, 以浮游塵埃之外.”- 【索隱】“上音濁, 下音鬧”

② 〈劉敬叔孫通列傳〉: “匈奴匿其壯士肥牛馬, 但見老弱及羸畜.”- 【正義】“上力爲反, 下許又反.”

③ 〈管蔡世家〉: “同母昆弟十人, 唯發, 旦賢, 左右輔文王, 故文王舍伯邑考而以發爲太子.”- 【正義】“左右並去聲.”

④ 〈衛將軍驃騎列傳〉: “將軍李沮, 雲中人. 事景帝.”- 【索隱】“音俎豆之俎.”

⑤ 〈扁鵲創公列傳〉: “臣意嘗診安陽武都里成開方, 開方自言以爲不病, 臣意謂之病苦沓風, 三歲四支不能自用, 使人瘖, 瘖卽死.”- 【索隱】“瘖者, 失音也, 讀如音. 又作厝. 厝者, 置也. 言使人運置其手足也.”

위에 열거한 용례① 〈索隱〉에서는 본문 속의 ‘濯淖’에 대해 直音法을 이용하여 濁과 鬧자를 이용하여 두 글자의 음을 표시하였고, 口+攴자에 대해서는 馘의 이

체자로 음과 그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를 달았다.<sup>1)</sup> 용례② 〈正義〉에서는 半切法을 사용하여 ‘羸’과 ‘畜’에 대해 주음을 하였다. 용례③ 〈正義〉에서는 성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左’‘右’ 두 글자가 去聲임을 표시하였다. 용례④ ‘沮’자에 대해서 〈索隱〉에서는 直音法을 사용하여 多音字인 ‘沮’를 쌍음절 낱말인 ‘沮豆’의 ‘沮’로 간단명료하게 注音하였다. 용례⑤에서는 ‘瘖’와 ‘音’ 두 글자 모두 ‘影母侵部’의 동음이며 의미 또한 同源자이다. 따라서 源字를 가지고 分化된 글자를 독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Ⅲ. 三家注의 文字訓詁 용례

〈三家注〉는 《史記》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훈고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방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다량의 校勘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속에는 문자의 形, 音, 義와 古今字의 用例 및 변화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들을 발견할 수 있다.

#### 1. 假借字

##### 1) ‘本無其字’의 假借

a. 〈刺客列傳〉: “士固爲知己者死, 今乃以妾尙在之故, 重自刑以絕從, 妾其奈何畏歿身之誅, 終滅賢弟之名.”- 【正義】 “重音持用反. 重猶復也. 爲人報讎死, 乃以妾故復自刑其身, 令人不識也. 從音蹤, 古字少, 假借無旁足, 而徐氏以爲終坐, 非也. 劉氏亦音足松反.”

b. 〈高祖本紀〉: “高祖每酤留飲, 酒讎數倍.”- 【索隱】 “樂彥云借讎爲售, 蓋古字少, 假借耳. 今亦依字讀. 蓋高祖代度, 既貫音, 且讎其數倍價也.”

1) 口+攴와 𠂔자의 관계에 대해서 《集韻·月韻》에 “𠂔, 《說文》, 盾也. 亦作口+攴”라고 하였고, 《段注》에서도 “𠂔, 作𠂔者, 或體也. 作伐者, 假借字. 《蘇秦傳》作口+攴.”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위에 열거된 두 용례의 주석에 나타난 ‘古字少’란 구절을 통해서 가차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또한 “從音蹤，古字少，假借無旁足”의 의미는 ‘從’의 本字는 ‘蹤’이며, 당시에는 ‘蹤’자가 없었기 때문에 ‘從’자를 빌려 ‘蹤’자의 뜻을 대신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사용되는 先秦 문헌에서도 ‘蹤’자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두 글자의 고음을 살펴보면 ‘從’은 ‘從母東韻’, ‘蹤’은 ‘精母東韻’으로 두 글자는 雙聲疊韻의 관계이다. 따라서 本無其字의 假借에 해당된다. ‘b’용례에서는 樂彥의 말을 인용하여 ‘隤’를 빌려 ‘隤’자의 뜻으로 사용되었기에 ‘隤’가 本字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古字少’로 인하여 가차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隤’는 《說文解字》新附字에서 ‘賣去手也。從口，隤省聲’이라고 하였고, 王筠의 《說文句讀》에서도 ‘隤之俗字’라고 풀이하고 있다. 선진문헌의 경우 절대 다수가 ‘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隤’는 ‘隤’의 후에 나온 本字인 ‘隤’의 俗字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자의 簡化과정에서 ‘隤’로 되었으며, 오늘날에 와서 통용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선진 문헌에 ‘隤’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후인들의 교감에서 나타난 오류이며, ‘本無其字’의 假借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2) 同源假借

- a. 〈張釋之馮唐列傳〉: “終日力戰, 斬首捕虜, 上功莫府, 一言不相應, 文吏以法繩之.”-【索隱】“案:莫訓大也。又崔浩云古者出征無常處, 以幕爲府舍, 故云莫府。莫當爲幕, 古字少耳。”
- b. 〈衛將軍驃騎列傳〉: “翁侯趙信爲單于畫計, 常以爲漢兵不能度幕輕留, 今大發士卒, 其勢必得所欲.”-【索隱】“案:幕則沙漠, 古字少耳。輕留者, 謂匈奴以漢軍不能至, 故輕易留而不去也。”
- c. 〈滑稽列傳〉: “祝曰:甌窶滿篝, 汗邪滿車, 五穀蕃熟, 穰穰滿家.”-【索隱】“案:甌窶猶杯樓也。窶音如婁, 古字少耳。言豐年收掇易, 可滿篝籠耳。”

위에 열거된 용례에서도 공통적으로 ‘古字少耳’라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가치 가차자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a’용례에 사용된 ‘莫’자의 경우 《說文》에서 “莫, 日且冥也。從日在艸中。”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幕’은 ‘莫’에서 파생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두 글자의 고음은 모두 ‘明母鐸部’로

‘莫’은 ‘慕’의 源字임으로 ‘莫’은 ‘慕’으로 써야 마땅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源字를 가지고 파생된 글자를 대신한 ‘同源假借’의 예로 볼 수 있다. ‘b’용례에 사용된 ‘慕’과 ‘漠’은 《說文》에서 “慕，帷在上曰慕，覆食案亦曰慕。從巾，莫聲”，“漠，北方流沙也。一曰清也。從水，莫聲。”라고 풀이한 것에 근거해 보면 ‘慕’과 ‘漠’은 諧聲字로서 고음이 모두 ‘明母鐸部’로 고음이 같으며, 그 뜻도 ‘廣大하다’는 의미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同源假借’에 해당된다. ‘c’용례에서 ‘婁’는 《說文》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樓，重屋也。從木，婁聲’라고 한 것으로 보아 ‘婁’와 ‘樓’는 ‘婁’를 성부로 하는 諧聲字임을 알 수 있다. ‘婁’는 《說文》에서 “空也。從母中女，空之意也.”라고 하였으며, 나아가 고음이 모두 ‘來母侯部’임으로 同源字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婁’가 ‘婁’와 ‘樓’의 源字에 해당함으로 ‘同源假借’에 해당된다.

### 3) 近音에 근거한 假借

a. 〈孝武本紀〉: “頌云自堂徂基，自羊徂牛；鼂鼎及鼂，不虞不驚，胡考之休。”- 【索隱】 “毛傳云：虞，謹也。姚氏案：何承天云虞當爲吳，音洪霸反，又說文以吳，一曰大言也。此作虞者，與吳聲相近，故假借也。或者本文借此虞爲歡娛字故也。”

b. 〈孝武本紀〉: “是歲，天子始巡郡縣，侵尋於泰山矣。”- 【索隱】 “侵尋即侵淫也。故晉灼云遂往之意也。小顏云侵尋，漸染之意。蓋尋淫聲相近，假借用耳。師古叔父游秦亦解漢書，故稱師古爲小顏也。”

위에 열거된 ‘a’용례에서는 2가지 가차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먼저 “此作虞者，與吳聲相近，故假借也.”라고 한 구절에서는 ‘聲相近’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그 외 “或者本文借此虞爲歡娛字故也.”라고 한 구절에서는 비록 명확하게 가차의 관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虞’와 ‘娛’자는 성부가 ‘吳’인 諧聲字이다. 게다가 ‘吳’, ‘虞’, ‘娛’의 고음이 모두 ‘疑母魚部’로 同源字에서 파생된 글자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音が 가까운 近音假借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b’용례의 주석에서 ‘尋’과 ‘淫’이 ‘聲相近’으로 인하여 가차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고음 ‘尋’은 ‘邪母侵部’이고, ‘淫’은 ‘餘母侵部’로 古韻이 同部에 속하고 聲紐가 鄰紐이지만 의미의 상관성은 없다. 따라서 ‘尋’과 ‘淫’은 음이 가까운 가차로 볼 수 있다.

## 4) 假借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 a. 〈項羽本紀〉: “秦始皇帝游會稽, 渡浙江, 梁與籍俱觀。”-【索隱】“韋昭云: 浙江在今錢塘. 浙音折獄之折. 晉灼音逝, 非也, 蓋其流曲折, 莊子所謂澗河, 卽其水也. 澗折聲相近也.”
- b. 〈匈奴列傳〉: “秋, 馬肥, 大會蹕林, 課校人畜計.”-【索隱】“服虔云: 音帶, 匈奴秋社八月中皆會祭處. 鄭氏云: 地名也. 晉灼云李陵與蘇武書云相競趨蹕林, 則服虔說是也. 又韋昭音多藍反. 姚氏案: 李牧傳大破匈奴滅襜褕, 此字與韋昭音頗同, 然林襜聲相近, 或以林爲襜也.”

위에 열거된 용례의 注에서는 각각 ‘澗折聲相近也’, ‘然林襜聲相近’라고 하여 가차의 원인이 ‘音近’임을 밝히고 있다. ‘澗折’는 《莊子》에서 말하는 ‘澗河’의 ‘澗’로 ‘浙’의 가차자이다. 왜냐하면 ‘浙江’이라는 명칭은 ‘그 물줄기가 굽이 굽이 흘러간다(蓋其流曲折)’라고 한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두 글자의 상고음은 ‘制’가 章母, 月部, ‘折’이 章母月部로 同音字이기 때문에 가차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b’용례의 경우, ‘林’의 고음이 來母侵部이고 ‘襜’은 來母談部로 고음이 來母의 雙聲이며 侵談의 對轉관계로 음의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와 ‘b’의 용례 모두 명확하게 ‘假借’임을 밝히고 있지 않다.

## 5) 假借임을 밝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경우

- a. 〈鄭世家〉: “十四年, 故鄭亡勵公突在櫟者使人誘劫鄭大夫甫假要以求入.”-【索隱】“左傳作傳瑕. 此本多假借, 亦依字讀.”
- b. 〈曆書〉: “少皞氏之衰也, 九黎亂德, 民神雜擾, 不可放物, 禍菑薦至, 莫盡其氣.”-【索隱】“上音在見反, 古薦字, 假借用耳, 薦, 集也.”
- c. 〈孝武本紀〉: “元年, 漢興已六十餘歲矣, 天下義安, 薦紳之屬皆望天子封禪改正度也.”-【索隱】“上音搢, 搢, 挺也. 言挺笏於紳帶之間, 事出禮內則. 今作薦者, 古字假借耳. 漢書作縉紳, 臣瓚云縉赤白色, 非也.”

‘a’용례의 경우, 司馬貞은 《左傳》에서는 假借字 사용이 빈번함을 지적하면서 ‘甫假’는 ‘傳瑕’의 가차자이며, 直音에 따라 ‘甫假’로 독음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가차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甫’와 ‘傅’의 고음은 모두 滂母魚部の 雙聲疊韻의 관계이며 ‘假’는 見母魚部, ‘瑕’는 匣母魚部로 旁紐疊韻의 관계임으로 가차되었음을 알 수 있다. ‘b’용례의 주석에 따르면 ‘薦’의 古字는 ‘荐’로 마땅히 ‘荐’자로 써야 되며, ‘薦’은 ‘荐’의 가차자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先秦 문헌에서는 대부분 ‘荐’자를 쓰고 있어 ‘荐’이 古字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薦’의 고음은 精母文部, ‘荐’은 從母文部로 두 글자는 旁紐疊韻의 관계로 近音에 속한다. 따라서 두 글자가 가차되었음을 알 수 있다. ‘c’용례에서도 司馬貞은 ‘薦’이 ‘摺’의 가차자라고 풀이하었는데, ‘薦’의 고음은 精母文部, ‘摺’은 精母眞部로 雙聲 관계이며 韻部가 眞文旁轉의 관계로 의미의 연관성은 없지만 近音으로 분류가 되어 가차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通假字

〈三家注〉의 통가자는 ‘假借’를 명시하거나, ‘某, 某同’, ‘某, 同某’, ‘某, 與某同’, ‘借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통가를 표시하고 있다.

### 1) 注음을 통한 통가표시 용례

〈三家注〉에서는 통가자에 대한 풀이에 있어 많은 곳에서 注음을 통해 통가를 밝히는 다양한 주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a. 〈楚世家〉: “六年, 使太子建居城父, 守邊.”- 【正義】 “父音甫.”
- b. 〈仲尼弟子列傳〉: “縣成字子祺.”- 【正義】 “縣音玄.”
- c. 〈樗里子甘茂列傳〉: “文信侯叱曰: 去. 我身自清之而不肯, 女焉能行之.”- 【正義】 “女音汝.”
- d. 〈武帝本紀〉: “敬道日出, 便程東作.”- 【正義】 “道音導. 導, 訓也.”

‘a’용례의 경우 《說文》에서 ‘甫, 男子之美稱也.’라고 하였는데 《詩經》의 ‘仲山甫之德, 柔嘉維則.’라고 한 것이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孔丘의 字는 仲尼父이며 尼甫라고도 불리웠다. ‘父’는 남자에 대한 미칭으로 주로 이름의 字로 많이 사

용하였다. 《春秋》에서 “三月，公及邾儀父盟於蔑。”라고 하였는데 《谷梁傳》에서 “儀，字也。父，猶傳也，男子之美稱也.”라고 한 것이 하나의 예이다. ‘b’용례의 縣은 《說文》에서 ‘縣，系也.’라고 풀이하였는데 《詩經》에서 “不狩不獵，胡瞻爾庭有縣貍兮.”라고 한 것이 그 의미로 사용되었다. 후에 이러한 ‘縣’의 의미는 ‘懸’자로 대신하였고 독음을 ‘胡涓切，平，先韻，匣. 元部.’로 사용하였다. 〈正義〉에서는 ‘縣’을 ‘玄’으로 注音하면서 ‘縣’과 ‘懸’의 통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c’용례의 ‘汝’는 고대한어에서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尚書》의 “汝陟帝位.”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汝’는 ‘女’의 本字에 해당하며, 선진문헌에서 종종 ‘女’자로 ‘汝’대신하여 2인칭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주음을 통하여 ‘汝’와 ‘女’의 통가관계를 나타내었다. ‘d’용례의 ‘道’는 고대한어에서 두 가지 음을 사용하였다. 하나는 ‘大到切，去，號韻，定. 幽部.’이고 또 다른 음은 ‘徒皓切，上，皓韻，定. 幽部.’ 전자에 해당하는 독음은 일반적으로 ‘引導’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후에 ‘導’자로 사용되었다. 《論語》의 “道千乘之國，敬事而信，節用而愛人，使民以時.”라고 하였는데 《經典釋文》에서 ‘道，本或作導’라고 한 것이 예증이 될 수 있다.

## 2) 古今字를 통한 通假표시 용례

- a. 〈春申君列傳〉：“春申君因城故吳墟，以自爲都邑。”- 【正義】“墟音虛，”
- b. 〈衛康叔世家〉：“三十五年，成公卒，遯子穆公遯立。”- 【正義】“遯音速，”
- c. 〈張儀列傳〉：“秦要楚欲得黔中地，欲以武關外易之。”- 【正義】“要音腰也，”
- d. 〈五帝本紀〉：“帝嚳溉執中而徧天下，日月所照，風雨所至，莫不從服。”- 【正義】“溉音既。言帝幹治民，若水之溉灌，平等而執中正，徧於天下也。”

‘a’용례의 ‘墟’자는 《說文·丘部》에서 “墟，大丘也.”라고 하였고, 《詩經·鄘風》에서 “升彼虛矣，以望楚矣.”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經典釋文》에서는 “虛，本或作墟.”라고 하였다. 따라서 《說文》에서는 ‘墟’대신 ‘虛’를 丘部에 귀속시켰다. 후에 ‘大丘’의 의미를 나타내는 ‘虛’는 모두 ‘墟’자로 사용하였다. ‘b’용례의 ‘遯’은 《說文》에서 “速，疾也.”라고 하고 ‘遯’을 ‘速’의 籀文으로 표기하였다. 《管子·侈靡》에서 “水平而不流，無源則遯竭.”하였는데, 《呂氏春秋·辯士》의 “莖生有行，故遯生；弱不相害，

故遯大.” 구절의 高誘注에서 “遯, 疾也.”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遯’과 ‘速’은 고금자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c’용례의 ‘要’는 《說文》에서 “要, 身中也, 象人要自白之形.”라고 한 것으로 보아 ‘要’는 ‘腰’의 본자이다. 《墨子·兼愛》에서 “昔者楚靈王好士細要, 故靈王之臣皆以一飯爲節.”라고 한 것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正義〉에서 ‘要’를 ‘腰’로 注音한 것은 후대에 통용된 글자를 가지고 本字를 注音한 경우라 할 수 있다. ‘d’용례의 ‘漑’는 〈集解〉에서 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古既字作水旁.”라고 한 것으로 보아 ‘漑’와 ‘既’는 고금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古字를 가지고 今字를 注音하여 通假關係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古今字

三家注에 사용된 古今字 표현 용어는 ‘今某字’, ‘今字作’, ‘今作’, ‘古今字異’, ‘古字例’, ‘古作字’, ‘古某字’, ‘古今字’, ‘古今字變’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 a. 〈五帝本紀〉: “於是黃帝乃徵師諸侯, 與蚩尤戰於涿鹿之野, 遂禽殺蚩尤..”-  
【索隱】“或作濁鹿, 古今字異耳. 按地理志上谷有涿鹿縣, 然則服虔云在涿郡者, 誤也.”
- b. 〈李斯列傳〉: “殺大臣蒙毅等, 公子十二人僇死咸陽市, 十公主砒死於杜, 財物入於縣官, 相連坐者不可勝數..”- 【索隱】“砒音宅, 與磔同, 古今字異耳. 磔謂裂其支體而殺之.”
- c. 〈周本紀〉: “封棄於郃, 號曰后稷, 別姓姬氏. 后稷之興, 在陶唐·虞·夏之際, 皆有令德..”- 【索隱】“卽〈詩·生民〉曰有郃家室, 是也, 郃卽籒, 古今字異耳.”

위의 용례는 모두 공통적으로 주석에 ‘古今字異’란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a’용례의 ‘濁’은 ‘흔탁하다’는 뜻으로 고음이 定母屋部이고, ‘涿’은 先秦시기에 지명이나 인명으로 사용되었으며 고음이 端母屋部로 두 글자의 음이 유사하며, 의미는 차이가 있다. 先秦 문헌 가운데 인명이나 지명으로 ‘涿鹿’을 사용한 예는 《莊子》에 보이며 ‘濁鹿’을 사용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진 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竹書紀年》에 ‘濁鹿’이 보인다. 따라서 ‘涿’과 ‘濁’은 가차자에 해당되며 아울러 시대의 선후의 차이가 있어 고금자로 볼 수 있다. ‘b’용례의 ‘砒’과 ‘磔’은 고음이 모두 端母

鐸部이며 그 뜻이 모두 신체의 사지를 찢는 혹형을 가리킨다. 先秦문헌의 용례를 보면 대부분 ‘磔’을 사용하고 ‘砑’을 쓰지 않았다. ‘砑’의 본의는 ‘두드리다, 치다’는 뜻이므로 ‘砑’은 ‘磔’의 後期 가차자 혹은 異體字라고 할 수 있으며 사용면에 있어서 시대의 선후 차이가 있으므로 고금자의 관계로 볼 수 있다. ‘c’용례의 ‘郤’는 고음이 透母之部이고, ‘齧’은 來母之部로 양자간에는 旁紐의 雙聲疊韻의 관계가 성립된다. ‘齧’는 《說文》에서 “彊曲毛”, ‘郤’는 《說文》에서 “炎帝之後”로 의미는 다르지만 두 글자가 가차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진 문헌의 경우 지명에는 대부분 ‘郤’를 쓰고 있다. 따라서 ‘齧’을 지명으로 사용한 것은 후에 나온 가차자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두 글자의 사용면에서 시대적으로 선후의 차이가 있어 고금자로 볼 수 있다.

- a. 〈曹相國世家〉: “至河內, 下脩武, 渡圍津, 東擊龍且·項他定陶, 破之..”-  
【索隱】“顧氏案, 水經注白馬津有韋鄉, 韋津城. 圍與韋同, 古今字變爾.”

위의 용례 중 ‘圍’는 《漢語大字典》에서 ‘韋’, ‘衛’, ‘圍’는 원래 한 글자임을 밝히고 있다. 자형 풀이에 의하면 ‘衛’는 4개의 길로 둘러싸인 성읍을 가리키며 ‘韋’의 변체자이다. ‘匚’은 성읍을 본뜻 것이고 성을 지키기 위하여 둘러싸는 것을 의미하며, 공격하는 자들이 성을 포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圍’이다. 자형의 좌우 혹은 상하의 ‘止’가 생략된 자형으로 ‘韋’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그 의미는 서로 거리를 두거나 서로 배치된다는 의미의 ‘違’자로 사용되었다. 두 글자의 고음은 모두 匣母微部이고 뜻이 서로 같으며, 모두 선진 문헌에 보이므로 이체자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나 주석에서 ‘古今字變’이라고 한 것은 어떤 근거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 a. 〈匈奴列傳〉: “而拜昌侯盧卿爲上郡將軍, 甯侯魏遼爲北地將軍, 隆慮侯周竈爲隴西將軍, 東陽侯張相如爲大將軍, 成侯董赤爲前將軍, 大發車騎往擊胡.”- 【索隱】“案: 表盧作(玄+彳), 古今字耳.”

위의 용례 중 ‘盧’는 《說文》에서 “飲器也”라고 하였는데 인신되어 ‘검은 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선진문헌에서 종종 ‘(玄+彳)’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說文》의 正文에서는 보이지 않고 《說文新附》에 “(玄+彳), 黑色也”라고 하였다.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에서는 “按，當爲爐之俗體”라고 하였다. 《廣韻》에서 ‘盧’와 ‘(玄+여)’는 모두 ‘落胡切’이라고 하였고, 상고음이 모두 ‘來母魚部’로 뜻이 서로 같다. 따라서 두 글자는 출현시기가 선후인 이체자이며 동시에古今字이기도 하다.

- a. 〈刺客列傳〉: “荊軻廢，乃引其匕首以擣秦王，不中，中桐柱。”-【索隱】“與擲同，古字耳，音持益反。”
- b. 〈孝武本紀〉: “太僕見馬遺財足，餘皆以給傳置。”-【索隱】“遺猶留也。財，古字與纒同。言太僕見在之馬，今留纒足充事而已也。”

위의 두 용례는 주석에서 모두 ‘與同’ 혹은 ‘通’, ‘古字’라는 용어를 사용하여古今字를 설명하고 있다. ‘a’용례의 경우, 《說文》에서는 ‘擣’자를 수록하고 있고 ‘擲’은 미수록 되어 있다. 《段注》에서는 “今字作擲”이라고 하였는데 글자의 의미가 두 글자마 모두 ‘던지다’라는 측면에서古今字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고음 역시 모두定母錫部이다. 따라서 두 글자는 뜻이 같은 이체자이기도 하다. ‘b’용례의 ‘財’는 《說文》에서 “人所賣也。從貝，才聲”이라고 풀이하고 있고, ‘纒’은 “帛雀頭色。一曰微黑色如紺。纒，淺也。”라고 하였다. 고음의 경우 ‘財’는 ‘從母之部’, ‘纒’은 ‘崇母談部’으로 서로 결코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廣韻》에 ‘纒’의 별도의 음인 “昨哉切，從母哈韻平聲”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上古후기와 早期 中古시기를 거치면서 음의 변화가 발생하여 ‘才’와 음이 유사하게 변한 것이 아닌지 추측된다.

- a. 〈天官書〉: “兎過太白，間可械劍，小戰，客勝。”-【索隱】“械音函。函，容也。言中間可容一劍。則函字本有咸音，故字從咸。劍，古作劒也。”

위 용례 중 ‘劍’의 古字는 ‘劒’이라고 하였는데, 두 글자의 形符가 ‘從刀’와 ‘從刀’으로 조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說文》에서는 “劒，人所帶兵也。從刀，僉聲。劍，籀文劍從刀。”라고 한 것으로 보아 두 글자는 의미와 기능이 모두 같고 자형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異體字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글자가 선후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 a. 〈匈奴列傳〉: “諸左方王將居東方，直上谷以往者，東接穢貉朝鮮。”-【索隱】

“案：姚氏云古字例以直爲值。值者，當也。”

위 용례 중 ‘直’과 ‘值’는 同源分化字이다. 先秦문헌 가운데는 대부분 ‘直’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며, ‘值’자는 本無其字의 가차자로 후에 나온 本字에 해당된다. 두 글자는 또한 사용시대가 다름으로 古今字라고 할 수 있다.

- a. 〈刺客列傳〉：“樊於期偏袒搯腕而進曰：此臣之日夜切齒腐心也，乃今得聞教。”-【索隱】“搯音烏革反。腕音烏亂反。勇者奮厲，必先以左手扼右腕也。腕，古腕字。”
- b. 〈張儀列傳〉：“共執張儀，掠笞數百，不服，醢之。”-【索隱】“古釋字，”
- c. 〈曆書〉：“少皞氏之衰也，九黎亂德，民神雜擾，不可放物，禍菑薦至，莫盡其氣。”-【索隱】“上音在見反，古荐字，假借用耳。荐，集也，”

위의 ‘a’용례 중 ‘挽’와 ‘腕’은 形符가 다른 글자로 모두 《說文》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廣韻》의 자음에서는 모두 ‘烏貫切’이며 자의 또한 “팔뚝”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글자는 이체자이다. 선진 문헌의 용례를 통해서 보면 ‘挽’은 《春秋左氏傳》，《韓非子》에 보이고, ‘腕’은 《墨子》，《儀禮》，《戰國策》 등에 보이므로, ‘挽’이 시기적으로 ‘腕’보다 조금 이른 관계로 古金자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 ‘b’용례의 ‘醢’은 고음이 ‘餘母鐸部’，‘釋’은 ‘晷母鐸部’로 서로 유사한 관계이고 의미의 연관성도 있다. 또한 선진 문헌의 용례를 보면 ‘醢’으로서 ‘釋’자를 대신하고 있어 두 글자는 古金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차관계를 띄고 있다. ‘c’용례의 ‘古荐字，假借用耳’ 구절은 가차로 인해 형성된 古金자임을 설명하고 있다. ‘薦’은 고음이 ‘精母文部’이고 ‘荐’은 ‘從母文部’ 의미 또한 풀로 만든 깔개를 뜻하므로 같은 낱말이라고 볼 수 있기에 선진시기에 이체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독음과 뜻이 조금씩 차이가 생겨 가차자로 변화되었으며, 사용시기의 선후에 따라 ‘荐’이 먼저 사용되었기에 古今字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a. 〈平淮書〉：“日者，大將軍攻匈奴，斬首虜萬九千級，留蹠無所食。”-【索隱】“留蹠無所食。蹠音迭，謂貯也。韋昭音蹠，謂積也。又按：古今字蹠今蹠字，則蹠與蹠同。按：謂富人貯蹠積穀，則貧者無所食也，”

위의 용례 중 ‘蹠’, ‘滯’, ‘滯’ 세 글자는 聲符가 모두 ‘帶’이며, 고음은 ‘蹠’가 ‘端母月部’, ‘滯’는 ‘定母月部’, ‘滯’는 ‘定母月部’로 모두 舌音의 성모로 月部에 속하며 의미 또한 서로 관련성이 있는 同源字이다. 《說文》에는 ‘蹠’와 ‘滯’가 수록되어 있고, ‘滯’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주석에서 《古今字詁》를 인용하여 ‘滯今滯字’라고 한 것으로 보아 ‘滯’를 今字, ‘滯’를 古字로 인식하였다. 두 글자는 자음이 서로 같고 의미상에도 연관성이 있어 異體字에 해당하기도 한다.

- a. 〈張儀列傳〉: “夫以一詐僞之蘇秦,而欲經營天下,混一諸侯,其不可成亦明矣.”  
- 【索隱】 “混本作棍, 同胡本反.”

위 용례의 주석에서는 ‘本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고금자를 가리키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棍’의 경우 《說文》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자음에 대해서는 《廣韻》에서 ‘胡本切’로 표기하였다. ‘混’은 《說文》에 수록되어 있고 《廣韻》에서는 자음을 ‘胡本切’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글자의 음이 같으며 선진문헌에서도 대부분 ‘混’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棍’은 ‘混’의 뒤에 출현한 이체자로 볼 수 있다.

#### IV. 결론

본문에서는 三家注의 文字訓詁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하여 문자의 가차 현상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차의 경우 ‘古字少’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本無其字’의 가차자를 구분하였으며, ‘古字少’와 ‘聲近’이 가차자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동음가차와 동원가차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점도 있다. 古今字에 대해서는 ‘古字’, ‘古某字’, ‘古字作’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특히 고금자와 가차 및 이체자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지어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대체로 문자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古今字를 인식하였고 문자 자체의 발전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古今字에 대한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문자통가 현상에 대해서도 통가현상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音義관계가 形義의 관계보다 우선 된다는 이치를 깨닫게 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고문헌의 훈고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후에 王念孫과 章太炎 등 청대의 학자들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三家注의 내용을 통해서 文字관련 訓詁 작업이 낱말의 정확한 해석과 문장 전체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 【參考文獻】

-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98.  
 張文虎, 《校勘史記集解索隱正義札記》, 北京, 中華書局, 1977.  
 崔适, 《史記探源》, 北京, 中華書局, 1986.  
 梁玉繩, 《史記志疑》, 北京, 中華書局, 1981.  
 陳直, 《史記新證》,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79.  
 段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94.  
 程金造, 《史記管窺》, 北京, 人民出版社, 1985.  
 馬文熙·張歸璧, 《古漢語知識詳解辭典》, 北京, 中華書局, 1996.  
 張桁·許夢麟, 《通假大字典》, 黑龍江人民出版社, 1993.  
 陸宗達, 《訓詁簡論》, 北京, 北京出版社, 2002.  
 王寧, 《訓詁學原理》,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7.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湖南, 岳麓書社, 1998.  
 王力, 《同源字典》, 北京, 商務印書館, 1982.  
 宗福邦等, 《故訓匯纂》, 北京, 商務印書館, 2003.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 四川辭書出版社, 1990.  
 陸宗達, 王寧, 《訓詁與訓詁學》, 山西, 山西教育出版社, 1996.  
 徐朝華, 《上古漢語詞匯史》, 北京, 商務印書館, 2003.  
 朱承平, 《古訓材料的鑑別與應用》,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2002.  
 鄧安生, 《通假字典》, 河北, 花山文藝出版社, 1998.  
 蔣紹愚, 《古漢語詞匯綱要》, 北京, 商務印書館, 2005.



### 【中文提要】

史記問世以後，爲之作注者甚多，至南宋時代，這些注解幾乎全部亡逸。現存完整注解是三家注。三家注有多量的魏晉至隋唐時期的訓詁資料，其中有關文字訓詁資料爲研究文字的演變及字音的變化，當是非常重要的訓詁價值。本稿根據三家注的文字訓詁記錄區分而分析其對解釋文字的內容，要進一步了解三家注對文字變化現象的認識。主要的研究範圍是探討專對假借字，通假字，古今字的認識。

### 【主題語】

史記, 三家注, 文字學, 訓詁, 假借字, 司馬遷

투고일: 2014. 6. 30 / 심사일: 2014. 7. 20~8. 5 / 게재확정일: 2014. 8. 10